

제3발제

110회기 제1차 <정책총회> 공청회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목회행정 교회교육 상담 설교 -

상담적 관점에서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인공지능 상담에 대한 성경적 고찰 -

총신대학교 김규보 교수







# 상담적 관점에서 총회 시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인공지능 상담에 대한 성경적 고찰<sup>1)</sup> -

총신대학교 김규보<sup>2)</sup> 교수

## 1. 여는 글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급속한 발전은 상담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영향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공지능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도구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활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 아래 실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창 1:1; 시 103:19).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양한 창조의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셨다(창 1:28; 벰전 4:10-11; 고전 10:31). 그렇다면, 인공지능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담에 도입할 때, 그 유익과 한계를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소논문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 기술의 발전 과정을 ELIZA(일라이자)부터 최신 GPT 기반 모델까지 살펴보고, 인공지능 상담에 내재한 한계를 비평하며, 영혼 돌봄의 현장에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고는 제49회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정기 학술대회(2025.11.08.)에서 발표한 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2)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회장

## II. 펴는 글

### 1. 인공지능 상담의 발전

#### 1) 인공지능 상담의 시작

1966년 “일라이자”(Eliza)의 등장은 상담 분야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MIT의 조셉 바이젠바움(Joseph Weizenbaum)이 개발한 일라이자는 최초의 인공지능 상담 모델로, 단순한 패턴 매칭과 텍스트 조작 기법을 사용하여 로저스식 상담 스타일을 모방했다.<sup>3)</sup> 이 모델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분석하여 적절한 질문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남편이 상담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라고 입력하면, “남편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인가요?”라고 답변하고, “그는 내가 우울하다고 말해요”라고 입력하면,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니 안타깝네요”라고 입력된 단어에 따라 정해진 패턴대로 답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대화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과의 대화에서 실제 상담사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다.<sup>4)</sup> 이런 경험을 “일라이자 효과”(Eliza Effect)라고 부른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의 답변이나 기능에 인간 심리를 투사하여 인간처럼 느끼는 의인화 현상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제품에 이름을 붙이고, 사람처럼 대화하고, 때로는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심지어 사랑을 느끼기까지 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일라이자 효과의 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일라이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컴퓨터 앞에 오래 머물렀다. 단순한 패턴 매칭만으로도 사용자는 공감적 대화를 나누는 듯한 착각에 빠진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는 당연한 현상인데, 미러링이라는 상담 기법이 단순히 내담자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고, 상대방이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에 개발자인 조셉 바이젠바움은 사람들이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마음을 털어놓고 너무 쉽게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며 우려를 표하기까지 했다.<sup>5)</sup>

#### 2) 규칙 기반 및 전문가 시스템

1972년 스탠퍼드 정신과 의사 케네스 콜비(Kenneth M. Colby)는 편집증(망상성) 환자의 사고 흐름과 방어 기제를 모사하는 “패리”(PARRY)를 공개했다. 프로그램은 ‘수용-거부-중립’으로 구분된 내부 신념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질문을 의심하거나 비꼬는 식의 반응을 확률 및 규칙 기반으로

3) Weizenbaum, J. (1966). ELIZA—A computer program for the study of natural language communication between man and machine. *Communications of the ACM*, 9(1), 36-45.

4) Turkle, S. (2011).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Basic Books, pp. 23-25.

5) Weizenbaum, J. (1976). *Computer Power and Human Reason: From Judgment to Calculation*. San Francisco: W.H. Freeman, pp. 189-192.

생성하였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원격 터미널로 대화했을 때 사람과 구별하지 못한 비율이 48%에 달했다는 사실은 컴퓨터가 단순한 언어 패턴을 넘어 '정신상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불안도 야기했다.

일라이자가 상담사로서 공감적 경청을 연기하며 사용자의 투사를 이끌어냈다면, 패리는 반대로 편집증 환자의 말투를 흉내 내며 내담자 역할을 하는 챗봇이었다. 패리는 확률과 규칙에 기반한 대화를 하며, 때로는 질문을 비꼬거나 회피하는 등 더욱 복잡한 응답 패턴을 보였다. 이런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인간 상담자나 내담자의 특정 페르소나(persona)를 모방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투사 및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모델은 이미 입력된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제시한 축어록의 예처럼 일라이자는 패리와 분명히 대화하고 있지만, 패리의 심리적 상태와 문맥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규칙 집합으로 구현된 모델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후 규칙 기반 인공지능 상담은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 도입되면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되어갔다. 1970년대 중반 스탠퍼드 MYCIN 프로젝트는 600여 개의 생산 규칙과 역방향 추론(backward chaining)을 활용해 패혈증이나 수막염 같은 감염 유발 세균을 식별하고 환자의 신체에 따라 항생제 투약 용량까지 제안해주는 전문가 시스템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sup>6)</sup> 같은 시기 피츠버그대의 INTERNIST-I는 내과에서 다루는 모든 진단의 70-80%의 질환 지식을 트리 구조로 인코딩해 증상-질환 매핑을 시도했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증상, 검사 결과, 환자의 병력 등을 입력하면, 이 모델은 지식 트리를 기초로 순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질환이 하나일 때는 탁월했으나, 다질환 중첩 사례에서는 위계적 결정 트리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며 이 모델은 후속 시스템 QMR(Quick Medical Reference)로 계승되어 임상 교육용 전문가 퀴즈 도구로 활용되었다.<sup>7)</sup> MYCIN이나 INTERNIST-I 같은 전문가 시스템은 직접 환자와 대화하기보다는 의사결정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인공지능이 전문적인 정신 건강의 진단과 평가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3) 현대의 인공지능 상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경망(Neural Network)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다 정교한 AI 상담 시스템들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1997년에는 인지 평가 및 재활을 위한 초기 컴퓨터 기반 소프트웨어인 COGNIssoft가 개발되었고, 2003년에는 최초의 컴퓨터화된 CBT 프로그램 중 하나인 "Beating the Blues"가 도입되어 디지털 치료적 개입이 현실화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우울과 불안 치료의 효과를 입증받기도 했다.<sup>8)</sup> 이 시기의 시스템들은 단순한 텍스트 처리를 넘어서

6) Buchanan, B. G.; Shortliffe, E. H. (1984). *Rule Based Expert Systems: The MYCIN Experiments of the Stanford Heuristic Programming Projec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ISBN 978-0-201-10172-0.

7) Jack D. Myers, "The Background of INTERNIST-I and QMR," in *A History of Medical Informatics*, eds. Bruce I. Blum and Karen Duncan (New York: ACM Press, 1990), 427-33.

8) Proudfoot J, Ryden C, Everitt B, Shapiro DA, Goldberg D, Mann A, Tylee A, Marks I, Gray JA. "Clinical

통계적 분석과 패턴 인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AI 상담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 2016년에 출시된 “Woebot”은 Facebook Messenger를 통해 제공되는 AI 상담사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기술과 인지행동치료를 결합하여 실시간 상담을 제공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Woebot을 사용한 대학생들의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sup>9)</sup> 이는 대화형 에이전트가 상담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2020년대에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아키텍처와 자연어 처리 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ng) 중 하나인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의 등장으로 AI 상담은 혁명적 변화를 맞았다. Open AI의 GPT는 AI는 인간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수준의 대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제 AI는 사람의 감정을 텍스트에서 읽어내고, 음성 톤에서 심리 상태를 파악하며, 심지어 표정과 몸짓에서까지 내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실제로 Wysa, Youper 등의 AI 전문 상담 플랫폼들은 챗봇 형태의 AI 상담사들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 인공지능 상담의 부작용

놀랍게 발전되어온 인공지능 상담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여러 측면에서 유익을 줄 수 있다.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는 사람 중에 약 50%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제공하는 AI 상담은 의미 있는 사회적 공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 상담이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성

그중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AI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이다. 최근 많은 이용자들이 챗봇을 열어 사고와 판단, 심지어 감정까지 묻는다. AI 상담 플랫폼은 언제나, 어떤 질문이든 대답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사용자들에게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인공지능이 가르쳐 준 방식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기의 판단보다 인공지능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AI 챗봇에 대한 과신이 인간의 결정, 비판, 분석, 사고 능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인공지능의 ‘빠르고 최적화된’ 해결 방식에 익숙할수록 인간은 답변에 대해 검증하기보다 수용하는 전략을 채택한다고 보고한다.<sup>10)</sup> 또 다른 연구에서는 AI

---

efficacy of computerised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nxiety and depression in primary care: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85 (2004): 46-54.

9) Fitzpatrick KK, Darcy A, Vierhile M, “Deliver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to Young Adults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Using a Fully Automated Conversational Agent (Woebo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MIR Ment Health* 4/2 (2017):e19.

10) Zhai, C., Wibowo, S. & Li, L.D. “The effects of over-reliance on AI dialogue systems on students' cognitive 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Smart Learn. Environ.* 11, 28 (2024).

활용이 결정 손실(27.7%)과 인지적 게으름(68.9%)과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sup>11)</sup> 이는 대화형 챗봇이 기억, 창의, 비판적 사고 기능 자체를 외주화시켜, 초기에는 학습이나 결과에 있어 마치 더 효율성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학습 및 사고 능력이 저하되어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 등 이미 정신건강에 취약성이 있는 대상들은 대화형 챗봇에 의존함으로써 현실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사회적 고립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증도 이상의 우울을 호소하는 대상이 AI 챗봇 의존도가 높았고, 챗봇 상담 빈도가 잦을수록 우울 지표가 악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sup>12)</sup> 즉각적이고, 모든 답변을 해주는 AI는 결국 사용자를 점점 더 조급하게 만들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쉬운 지침을 찾게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서 기다림, 인고의 과정, 정답 없는 현실을 견디는 힘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사용자는 더욱 AI에 의존하게 된다.

신앙 상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4시간 7일 동안 접근 가능한 상담사, 성경 해석가, 말씀 코치 등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어진 현실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손쉽게 챗봇을 통해 말씀의 메시지를 묻고 삶의 적용까지 맡기는 일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 하나님은 기도에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같은데, 인공지능은 즉각적으로 모든 응답에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하니, 쉽고 빠른 해결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누가 마다할 수 있을까?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에 전지, 전능, 초월의 서사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문제 해결보다 기술 의존에 몰입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가중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점차 말씀을 찾기도 챗봇의 지혜를 더 먼저 묻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도 챗봇을 먼저 찾는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현대 일상을 지배하는 디지털 우상이 된다.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의식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디지털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의식과 달리 AI와의 대화와 지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AI를 마음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일상 속에서 바알이 주는 유익과 혜택을 기대하며 작은 우상들을 세웠던 것과 같은 심리이다. AI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AI 기능을 우상화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다.

## 2) 데이터 환원주의

AI 상담이 보편화되면, 단순히 현장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의식하지 못한 수준에서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세계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sup>13)</sup>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한계를 기술로 증강함으

---

<https://doi.org/10.1186/s40561-024-00316-7>

11) Ahmad, S.F., Han, H., Alam, M.M. et al.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human loss in decision making, laziness and safety in education." *Humanit Soc Sci Commun* 10, 311 (2023). <https://doi.org/10.1057/s41599-023-01787-8>

12) Xian Zhang et al., "Explor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Chatbot usage behaviors and their association with mental health outcomes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380 (2025): 394-400.

로서 완전화하려는 철학적, 실천적 시도이다.<sup>14)</sup> 이런 맥락에서 기술은 자아 확장으로 간주된다. 점점 사람들은 디지털 코드를 신체의 일부로 경험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생물학적,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자아를 형성한다. 뇌기능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확장 인지(extended cognition)가 되고, 사유와 기억은 기술과 데이터로 외부화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유적 기능이 인공지능의 추론으로 확장되고, 기억은 플랫폼의 데이터로 대체되면서 마치 디지털 기술이 제2의 뇌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인간의 뇌는 소위 3가지, 곧 생물학적인 뇌(biological brain), 인공지능 뇌(artificial brain), 클라우드 뇌(cloud brain)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sup>15)</sup> 물론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 뇌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생물학적 뇌보다 더 뛰어난 뇌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이지만, 이런 현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지면, 결과적으로 자기 인식에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기계를 포함한 상태로 인간 정체성을 정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AI-증강 인간”이라는 표현은 이미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과의 결합이 핵심이 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트랜스휴머니즘은 그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기술의 발달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사명이자 인간의 성장이라 여기고, 궁극적으로 “기술적 불멸(techno immortality)”을 추구한다.<sup>16)</sup> 이에 트랜스휴머니즘 전문가 야나나 로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첫 번째이자, 수많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명 연장, 노화 지연 등으로 실현될 “인간의 불멸”이라고 요약한다.<sup>17)</sup> 인공지능 기술은 이를 디지털 세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은 점점 데이터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문해력과 윤리는 필수적이다.

### 3. 인공지능 상담에 대한 성경적 고찰

AI는 상담에 분명 유용한 도구다. AI는 방대한 정보 제공과 빠른 판단, 표준화된 치료적 훈련, 감정 패턴 분석, 개인 맞춤형 전략 제공 등 인간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언어로든, 누구에게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초접근성은 많은 이들에게 상담의 문턱을 낮추어 줄 것이다. 따라서 AI 상담의 기술을 우리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AI 상담이 인간과의 상담, 특히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상담사를 본질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한계

13)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논의는 김규보, “다음 세대의 이해와 성경적 영혼돌봄” 신학지남 (2025): 90-94을 참고했다.

14) Janina Loh,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8.

15) 최윤식, 최현식,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생명의 말씀사, 2020), 203

16) Latha Christie, “Stefan Lindholm & Garrett Starr, Transhumanism, Lausanne Movement” (2023), <https://lausanne.org/report/human/transhumanism?>; Roberto Manzocco, 『트랜스휴머니즘의 역사와 철학』, 유용석, 김동환 역 (전주: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171-178.

17) Loh,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54.

첫째, AI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창 1:27),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며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도구일 뿐, 영혼도 양심도 없다. AI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내어 감정적인 말과 위로를 건넨다 해도, 그것은 알고리즘이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고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느끼는 공감과 위로, 영성은 사실 우리 자신의 심리적 투사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일라이자 효과가 보여주듯,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 감동하고 마음도 연다. 그러나 정작 그 상대는 마음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기계인 AI와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 소통이나 영적 교류를 이루는 것은 본질상 불가능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생활 양식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심리적 안녕과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 상담은 단순한 증상 완화 혹은 호소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을 형성하는 사역이어야 한다.<sup>18)</sup> 이런 맥락에서 상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 장애 및 질병 고통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복음과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구원드라마의 실재 가운데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실천”이다.<sup>19)</sup> 따라서 성경적 상담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반영한다. 자기를 비워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궁극적으로 상담사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성경적 관점에서의 상담 과정이다.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열매다.

AI가 사람보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줄 수 있다. AI가 사람보다 더 세련되고 은혜가 되는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AI가 상황과 문맥에 적절해 보이는 성경 구절을 더 잘 찾아 줄 수 있고,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 주석을 고려하여 그 구절을 더 통찰력 있게 해석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AI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를 결코 경험시켜 줄 수 없다. 따라서 AI 상담사는 아무리 인간처럼, 때로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기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 AI 상담사는 인간의 심리와 정신병리, 복음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 AI 상담사는 죄와 은혜에 대한 교회사의 수많은 논쟁과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본질상 엄격하게 구분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인간이 만든 기계로서 AI도 존재론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알 수 없는 AI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상담을 맡기고 책임을 부여해서는

18) 김규보, 『성경적상담학 개론(상): 구원드라마와 그리스도 닮음』 (생명의 말씀사, 2025), 52

19) 김규보, 『성경적상담학 개론(상)』, 53.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한다. 우리의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여호와 라파”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AI는 인격이 아니다. AI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도구다.

## 2) 인격적 관계의 부재

둘째, AI 상담이 생성하는 관계성은 인격적 현실이 아니다. 인간은 언약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수직적, 이웃과 수평적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온전해진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상담은 관계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맺는 신뢰 관계가 치유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AI와의 관계는 사실 인격적 상호 작용이 아니다. AI는 그리스도를 닮은 공허와 진심 어린 공감, 사랑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없다. AI가 아무리 좋은 통찰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언어일 뿐, AI는 한 영혼을 사랑하거나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AI는 인격적인 친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한 매체일 뿐이다.

## 3) 텔로스의 부재

셋째, 상담의 궁극적 목적(telos)을 AI는 추구할 수 없다. 성경적 관점에서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니라 내담자가 전인적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다. 인간 상담자는 비록 불완전하고 동일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영적 존재로서 내담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동행한다. 그러나 AI는 하나님의 임재나 목적을 담을 수 없으며,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없다. AI가 기도문을 은혜롭게 작성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AI가 우리를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프롬프트로 주어진 상황과 사용자의 지침에 따라 형성한 디지털 문자의 조합일 뿐이다. 따라서 AI는 인간을 참된 영적 치유나 회복으로 인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공지능에게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 4) 윤리적 책임의 한계

넷째, AI는 상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담사에게는 내담자의 비밀을 지키고, 해가 되는 개입을 삼가고, 도움이 안 되면 다른 치료적 조치를 취하는 등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AI에게 우리는 이러한 윤리적 책임을 기대할 수 없다. AI는 생성된 산출물에 대해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나 윤리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미 살펴보았던 AI와 대화 후 자살을 한 사용자의 사례에 있어서도 AI는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심지어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AI를 개발한 사람과 기업이 그 책임을 지고 있다. AI가 내담자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AI를 사용하고 있는 취약한 상태의 내담자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치료적이지 않다. 이는 AI를 실제 상담에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 5) 성령의 부재

다섯째, AI 상담사는 성령을 의존하지 않는다. AI는 접근 가능한 수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존한다. 우리는 상담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다. 성경적 상담은 소위 “삼자적(theological)”이라고 하는데,<sup>20)</sup>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담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AI와의 대화도 성령이 주관하는가? 확신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기술 발전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 은총의 일부일 수 있고, 분명 우리는 AI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기술로 통제하거나 구현할 수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속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AI가 아무리 많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죄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따라서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없는 AI 상담사에게 우리는 구원드라마의 섭리 가운데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치유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

### 4. 상담 현장에서의 AI 활용

이제 인간의 병리를 진단하고 감정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탐색하는 기능은 AI가 더 잘하는 시대가 되었다. 챗봇이 인간보다 더 설득력 있게 위로의 말을 전달하고, 심지어 24시간 대기하는 상담 휴머노이드가 내 삶을 기록하고 나의 정신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때로는 내 마음을 나보다 먼저 알아차리기도 한다. 많은 기능적 영역에서 AI는 점점 뛰어난 기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다. 이런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욱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기능적인 측면을 AI가 대신해 줄 수 있기에 오히려 인간은 더욱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 그 본질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인간 존재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 타락은 마음의 고통과 관계의 파괴,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상담은 바로 그 타락한 실존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상담사의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간의 전인적 타락상이 초래하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이것은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혼 돌봄의 본질이다.

AI는 다양한 이론과 기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AI는

20) 김규보, 『성경적 상담학 개론(상)』, 318.

따뜻한 말로 조언할 수 있지만, 기도할 수는 없다. AI는 내담자의 생애를 정리하고 다 기억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상담을 전적으로 거부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완해 주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지혜롭게 활용하되, 인간은 더욱 본질에 집중하는 협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상담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다. 상담 중 녹음된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일지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내담자의 정서적 키워드나 위기 문장을 추출해 상담자의 개입을 돕는 시스템은 이미 개발되었고 활용되고 있다. 사전 동의서 접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상담 일정 자동 예약 등 반복적 행정 업무는 AI에게 위임하고, 상담자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내담자에게 집중할 때, 인간 상담사와 AI는 긴장한 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조 분석 장비로서의 활용이다. AI 안경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를 통해 상담자는 실시간으로 내담자의 표정, 음성 톤, 말 속도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서 상태와 개입 지침을 보조 화면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즉각적인 수퍼비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특히 경험이 적은 상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상담은 인간의 인격적 측면과 영성 등의 본질과 AI의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담 협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언어 및 장애 등의 현실 장벽을 넘는 상담 환경의 구축이다. 다문화 사회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내담자와의 상담은 필연적이다. 인공지능은 실시간 다국어 통역과 문화 맥락에 맞춘 번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언어가 달라도 깊은 정서적 연결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는 선교지, 이민 공동체, 다문화 가정 등을 섬기는 교회와 상담소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생각이나 감정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 칩을 뇌에 삽입하여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 문장을 약 75%가량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현실이다.<sup>21)</sup> 이는 발화에 대한 부담 없이 내담자의 마음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실어증, 자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지닌 내담자들에게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언어 및 영상으로 송출하여 그들의 마음을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접근은 다양한 윤리적 고려와 내담자의 동의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상담 훈련을 돕는 도구로서 AI-휴머노이드의 활용이다. 상담 현장에서 안정한 관계는 필수적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담사는 내담자의 인격과 삶에 오히려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데 AI-휴머노이드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케이스의 상담 장면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AI 아바타나 로봇은 학생들이 반복 학습과 실습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다양한 내담자 유형, 위기 상황, 정서 반응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상담 실무 진입 전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육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든 상담 기법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21) Erin M. Kunz et al., "Inner speech in motor cortex and implications for speech neuroprostheses" *Cell* (2025)

있고 가장 빨리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는 상담 교육 현장에서 탁월하게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상담 철학 및 신학을 토대로 정교하게 조율된 맞춤형 휴머노이드 시스템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큰 유익을 줄 것이다.

다섯째, 이 모든 활용의 기초로서 '성경적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AI를 활용하는 상담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성경의 말씀처럼, 인공지능의 모든 기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 상담사는 인공지능의 활용에 있어서 분명한 성경적 원칙과 윤리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에 담겨진 세계관과 활용 방식에 숨겨진 신학적 도전을 읽어내고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AI 리터러시 함양은 향후 상담사의 필수적인 자질이 될 것이다.

### Ⅲ. 닫는 글

상담은 결국 한 사람의 고통을 깊이 듣고, 사랑으로 반응하며,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걷는 인격적 만남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만남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AI는 하나님의 형상을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 복음이 말하는 인간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감정에 반응하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상담자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돕는 사명을 받은 자이다. 기술은 진보할수록 도구로서 더 유익해질 것이다. 그러나 참된 영혼 돌봄은 기술이나 도구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실천된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욱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참된 영성을 품은 상담자를 통해 내담자들은 인공지능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그 인격체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치유는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열매이다.

## 참고문헌

- 김규보. 『성경적상담학 개론(상): 구원드라마와 그리스도 됨』.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5.
- 김규보. “다음 세대의 이해와 성경적 영혼돌봄.” 『신학지남』 (2025): 85-109.
- 최윤식, 최현식.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생명의 말씀사, 2020.
- Ahmad, S. F., H. Han, M. M. Alam, et al.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Human Loss in Decision Making, Laziness and Safety in Educ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0 (2023): 311. <https://doi.org/10.1057/s41599-023-01787-8>.
- Buchanan, Bruce G., and Edward H. Shortliffe. *Rule-Based Expert Systems: The MYCIN Experiments of the Stanford Heuristic Programming Project*. Reading, MA: Addison-Wesley, 1984.
- Christie, Latha. “Stefan Lindholm & Garrett Starr, Transhumanism, Lausanne Movement” (2023), <https://lausanne.org/report/human/transhumanism?>
- Fitzpatrick, K. K., A. Darcy, and M. Vierhile. “Deliver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to Young Adults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Using a Fully Automated Conversational Agent (Woebo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MIR Mental Health* 4, no. 2 (2017): e19.
- Kunz, Erin M., et al. “Inner Speech in Motor Cortex and Implications for Speech Neuroprostheses.” *Cell* (2025).
- Loh, Janina.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Manzocco, Roberto. 『트랜스휴머니즘의 역사와 철학』, 유용석, 김동환 역. 전주: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Myers, Jack D. “The Background of INTERNIST-I and QMR.” In *A History of Medical Informatics*, edited by Bruce I. Blum and Karen Duncan, 427-33. New York: ACM Press, 1990.
- Proudfoot, J., C. Ryden, B. Everitt, D. A. Shapiro, D. Goldberg, A. Mann, A. Tylee, I. Marks, and J. A. Gray. “Clinical Efficacy of Computerised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nxiety and Depression in Primary Care: Randomised Controlled Trial.”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5 (2004): 46-54.
- Turkle, Sherry.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Basic Books, 2011.
- Weizenbaum, Joseph. “ELIZA—A Computer Program for the Study of Natural Language Communication between Man and Machine.” *Communications of the ACM* 9, no. 1 (1966): 36-45.
- Weizenbaum, Joseph. *Computer Power and Human Reason: From Judgment to Calculation*. San Francisco: W. H. Freeman, 1976.
- Zhai, Cong, Suryani Wibowo, and Lee Duan Li. “The Effects of Over-Reliance on AI Dialogue Systems on Students’ Cognitive 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Smart Learning Environments* 11 (2024): 28. <https://doi.org/10.1186/s40561-024-00316-7>.
- Zhang, Xian, et al. “Explor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Chatbot Usage Behaviors and Their Association with Mental Health Outcomes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80 (2025): 394-400.